

사설

불교사회복지의 과제

조계종 복지재단이 설립 5주년을 맞았다. 오랫동안 불교계에 있어서는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복지의 영역을 개척하여 어느 정도 토대를 쌓았다는 점에 우선 큰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우리는 단지 중앙 종단 중심의 복지 사업을 우선은 각 교구본사차원의, 나아가서는 각 사찰 단위의 복지 사업 차원으로 확대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에야 우리 불교인들의 복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복지의 기본 실행으로 복지가 자리잡게 됨으로써 위로부터의 복지사업이 아닌 밑으로부터의 복지사업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 아직까지 불교계의 복지사업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실은 조계종 복지재단의 성과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승가복지 분야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음으로써, 복지를 추진하는 집안 내부의 복지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집박의 일을 어찌 해결하느냐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이상적인 구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범 종단적인 지원이 필요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종교 다원주의 사회에서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불자 실행의 질을 높이는 데는 복지사업의 확대 이상의 것이 없다.

다음으로 불교 복지 사업의 발전을

통일발원 1000일 정진

불교계 21개 단체가 모여 '민족화합과 통일을 위한 1000일 정진연대'를 출범시켰다.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달성하는 과제는 누가 뭐래도 우리 민족의 최대 화두다.

우리 불교계가 과거를 참회하고 민족화합과 통일에 앞장서야 한다.

통일은 결코 자력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북한의 굶어죽는 어린이에게 동족으로서의 안타까움보다는 우월감을, 도둑의 손길보다는 의혹의 눈길을 먼저 보내는 그런 반민족적 반상들이 우리 주위에 건재하는 한 우리는 통일을 일깨울 수 없으며, 그러한 자질이 없는 민족으로 언제까지 국제사회의 눈총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정진에는 민족화합의 과제를 위한 통일강좌도 연다고 한다. 여기에는 교계안팎의 전문가들이 초빙되며 토론도 벌이고 북한통포포기 모금, 문화체험 등의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운용된다고 한다.

통일은 낭만적인 환상으로 약속되지 않는다. 일회성 캠페인으로도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가 통일을 위한 만큼 빨리 다가오고 통일을 준비한 만큼 쉽게 성취될 것이다. 불교는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불교인들은 통일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라고 누가 후일 물었을 때 아무 대답도 할 것이 없는 불교가 된다면 다가올 통일의 시대엔 더욱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열린마당

방생, 이대로 좋은가

최근 한 공중파 방송이 저녁뉴스 시간에 임진강 상류의 한 방생법회를 보도하며 '방생 오염'의 폐해(얼어죽는 방생물 미꾸라지와 쓰레기 오염 등)를 지적했다.

물고기에 의한 토종어류의 멸종 위기, 촌름, 쓰레기 등에 의한 환경오염 등 그 폐해가 심각해 문제가 되고 있다. 충북도가 충주호에 방생관광코스를 개발하고, 강원도가 5월 단오날(6월6일)에 지역불교계와 협의해 '새천년 방생 기원제'를 열기로 하는 등 최근 지자체가 방생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방생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

첫 번째 계율인 불살생의 적극적인 실천 덕목인 방생을 보다 의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법계방생(法界放生)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내가 추구하는 정신세계에 따라 현상세계의 차별이 결정된다는 것이 아함부계경(界經)의 사상이다.

방는 중생계를 깨달음의 빛으로 구제하는 것 자체가 방생의 중요한 배대이다. 이제까지의 맹목적인 물고기 살리기 차원을 한 단계 뛰어넘기 위해서는 죽음의 위기에 처한 다양한 종류의 생명 즉 중생들을 찾아내야 하고, 그들을 살리는 방법론 역시 다양하게 전개해야 한다.

법현<종단협의회 사무국장>



그리고 살려주기, 치료해주기, 먹여주기, 쓰레기 줍기, 셋강 살리기 등 생태계 보존을 위한 각종 조치 취하기, 생태기행을 통한 생명존중 의식 높이기, 질병·진두·투옥 등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 구하기, 장기 기증을 통해 새 생명 구하기 등 찾아야 할 방법은 얼마든지 많다.

생명존중 방생의미 새겨야

방생이란 무엇인가. 놓을, 살릴, 생 존 생명을 놓아서 살리는 것을 말함이니, 협의적으로는 '생태계 방생'을 의미하고, 광의적으로는 '진리계 구현'을 뜻한다.

동식물종 보호, 나무심기, 물고기 방생, 개고기 식육방지법 제정, 환경운동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진리계의 구현'을 통한 방생은 '진리생명과 합일'을 그 사명으로 한다. 이런 방생의 유일한 행은 방하착(放下着)이다. 자기라는 모든 아상을 놓아버리고, 정신활동의 모든 중심점을 우주적인 조율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우주 대조화'의 방

성덕<불교자원봉사원 회장>



생이다. 여기에는 '사람 방생'과 '마음 방생'을 들 수 있다. 사람 방생이란 인간의 존엄성에 입각해 그 사람의 고통스런 입장을 살펴주고 도와주는 것이다. 하지만 방생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방생은 부자유한 중생의 마음을 자유자재한 부처님의 마음자리로 놓아서 살려내는 마음 방생이다.

수질오염 등 생태파괴 우려

전국 사찰에서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신도들과 함께 호수에서 자라와 미꾸라지 등을 방생한다. 또 어류들이 잘 먹고 자라라는 뜻에서 쌀도 강에 함께 뿌린다. 하지만 양어장에서 인공적으로 키워진 대부분의 자라와 미꾸라지는 수온이 아직 낮은 탓에 환경에 적응 못하고 물에 들어가자마자 곧 죽는다.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종의 무분별한 방생은 차치하고서라도 최근 상업성이 결합된 지자체의 방생관광 코스개발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토종어류를 방생한다는 처라도 장기적으로는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해 부영양화 등 수질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유람선을 타고 방생을 실시해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유정길<불교환경연구원 사무국장>



수종어류들을 놀라게 하는 등 생명보호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제 어류 방생 차원을 넘어서 토착어종 보호운동, 아생동물 먹이주기, 산림보호 등 생태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생태적 방생을 생각할 때다. 환경을 생각하는 방생이 결국은 인간과 자연을 함께 살리는 진정한 '생명 해방'이 될 것이다.

불교자원봉사원

환경친화적 방생

환경친화적인 방생은 어떠한가.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 스님)가 '생태계 평화운동 2000' 캠페인을 통해 생태계 보존을 도모하는 방생법회를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자연합회는 이미 지난 1월 지리산 법사굴 등지에서 '생태계 평화운동 2000'의 일환으로 '제1차 아생주소 사랑의 먹이주기' 행사를 가졌으며, 앞으로 해마다 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3월에는 '국토 푸르게 가꾸기'를 위한 은행나무심기, 4월 기러기 방생, 7월 새 사랑의 먹이주기, 11월 나무 보살피기 방생법회 등 매달 어진법 방생법회를 계획하고 있다.

불자연합회는 이와 함께 '인간 방생'을 실천하기 위한 '어진법 봉사은행'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봉사기록 수첩에 봉사시간, 봉사내용을 기록해 왔다가 매달 발표하고, 연말엔 이를 바탕으로 포상도 실시할 계획. 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무의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직접 재배한 배추로 김장김치를 담아 보낸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Advertisement for Bulje Cable (불제케이블)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cable and text describing its features, safety, and contact information for Bulje Cable Co., Ltd. (불제케이블). The ad includes a list of products, safety warnings, and a contact box with phone and fax numbers.